

03 2027학년도 수시 원서

여섯 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

안정·적정·소신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	숫자부터	2
02	무엇이 다른가	3
03	갈래도 함께 나눕니다	4
04	그래서 무엇을	5
05	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**바닥은 정시로 갈 수 있는 선입니다** — 수시에 등록하면 정시가 닫히기 때문
- ◆ **안정·적정·소신을 정시 선 기준으로 다시 정의하면** — 「안정 두 장」이 늘 옳지 않은 까닭
- ◆ **충만 나누면 반쪽입니다** — 갈래로도 나눠야 하는 이유와 네 가지 위험한 쏠림
- ◆ **최저 없는 자리를 한두 장 섞어 두는 것이 안전판이 되는 까닭** · 짜는 차례 여섯

01 · 숫자부터

바닥을 먼저 정합니다

「안정 둘, 적정 둘, 소신 둘로 쓰면 되나요?」

가장 널리 도는 공식이고, 가장 자주 틀리는 공식이기도 합니다. 안정·적정·소신은 내 성적을 기준으로 정하는 말인데, 정작 기준이 되어야 할 바닥을 안 정하고 쓰시기 때문입니다. 그 바닥은 정시로 갈 수 있는 선입니다.

왜 정시 선이 바닥인지부터 보시겠습니다. 규칙 하나 때문입니다.

이렇게 되면	그다음
수시에 최종 등록하면	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
충원으로 붙어 등록해도	마찬가지입니다
수시에 다 떨어지면	정시로 갑니다

그러니 정시로 갈 수 있는 곳보다 낮은 자리에 원서를 쓰는 것은 그 자리에 붙으면 손해가 되는 원서를 쓰는 일입니다. 붙어서 곤란해지는 원서는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.

그리고 충원까지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. 2026학년도 충원을 중앙값이 75%였고, 교과는 122%였습니다. 「어차피 안 붙겠지」로 쓴 자리가 실제로 붙습니다.

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. 정시 선을 먼저 세우고, 그 위로 여섯 장을 쌓습니다.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및 어디가 전형결과 2026학년도 집계. 수시 등록자의 정시 지원 제한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른 것입니다.

02 · 무엇이 다른가

세 층의 뜻

안정·적정·소신을 정시 선을 기준으로 다시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.

층	무엇인가	몇 장
안정	정시 선보다 확실히 위이고, 붙을 가능성이 큰 자리	1~2장
적정	작년 컷과 내 성적이 비슷한 자리	2~3장
소신	컷보다 위지만 가고 싶은 자리	1~2장

안정의 정의가 중요합니다. 「무조건 붙는 곳」이 아니라 「붙어도 좋은 곳 가운데 붙을 가능성이 큰 곳」입니다. 붙었을 때 안 가고 싶은 자리는 안정이 아니라 버리는 장입니다.

그래서 「안정 두 장」이 늘 옳지는 않습니다

정시 선이 높은 학생은 안정 자리를 잡기 어렵습니다. 정시로 갈 수 있는 곳보다 확실히 위이면서 붙을 가능성도 큰 자리가 **잘 없기** 때문입니다. 이런 학생은 **안정을 줄이고 소신을 늘리는**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. 수시에 다 떨어져도 정시가 있기 때문입니다.

정시 선이 낮은 학생은 반대입니다. 수시가 사실상 주된 길이므로 **안정을 두텁게** 하셔야 합니다. 이 경우 여섯 장을 다 쓰는 것이 대개 맞습니다.

즉 배분은 성적의 높낮이가 아니라 「수시와 정시 중 어디가 주력인가」로 갈립니다. 같은 등급이어도 수능이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 정반대가 됩니다.

출처: 배분에 대한 설명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. 공시 자료로 뒷받침되는 공식이 아닙니다.

03 · 갈래도 함께 나눕니다

총만 나누면 반쪽입니다

여섯 장을 **총**으로만 나누면 위험이 남습니다. **갈래**로도 나누셔야 합니다.

이렇게 물리면	무엇이 위험한가
여섯 장이 다 교과	내신 한 가지로만 재니, 등급이 안 되면 여섯 장이 함께 안 됩니다
여섯 장이 다 최저 있음	수능 하루에 여섯 장이 함께 걸립니다
여섯 장이 다 논술	고사일이 겹쳐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이 적습니다
여섯 장이 다 학종	서류가 약하면 다 같은 이유로 떨어집니다

둘째 줄을 특히 보십시오. 수시 전체의 **46%**가 수능최저를 겁니다. 여섯 장을 최저 있는 자리로만 채우면 **수능 당일 한 과목이 흔들릴 때 여섯 장이 동시에 사라집니다.**

그래서 **최저 없는 자리를 한두 장 섞어 두는 것이 안전판이 됩니다.** 학종은 **15%만** 최저를 겁니다 — **최저 없는 자리를 찾기 가장 쉬운 갈래**입니다.

그래서 두 축으로 봅니다

여섯 장을 **총(안정·적정·소신)**과 **갈래(교과·학종·논술)**의 두 축으로 펼쳐 놓아 보십시오. **한 칸에 몰려 있으면 그것이 위험 신호**입니다.

그리고 **최저 있음·없음**도 표시해 두십시오. **최저가 없는 장이 하나도 없다면** 한 장은 바꾸시는 편이 낫습니다.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. 배분 방법은 저희 판단입니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짜는 차례와 점검표

순서를 지키면 여섯 장이 저절로 자리를 잡습니다.

차례	무엇을	왜 이 순서인가
1	정시 선을 세웁니다	바닥이 정해져야 나머지가 정해집니다
2	그 선 아래 자리를 지웁니다	붙으면 손해가 되는 자리입니다
3	남은 자리를 층으로 나눕니다	안정·적정·소신
4	갈래로도 나눕니다	한 칸에 몰리지 않게
5	최저 없는 장을 한둘 섞습니다	수능 하루의 위험을 나눕니다
6	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봅니다	겹치면 한 장은 죽습니다

2번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 적습니다. 「혹시 모르니 하나쯤」으로 낮은 자리를 넣으시는데, 그 자리에 붙고 층원까지 돌면 정시가 닫힙니다. 안 갈 자리는 처음부터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.

여섯 장을 정하고 나서 확인하실 여덟 가지

- ☐ 정시로 갈 수 있는 선 을 세어 보았는가
- ☐ 그 선보다 낮은 자리 가 섞여 있지 않은가
- ☐ 여섯 장이 한 갈래에 몰려 있지 않은가
- ☐ 최저 없는 자리 가 하나라도 있는가
- ☐ 안정이라 부른 자리에 붙으면 갈 것인가
- ☐ 소신 자리가 둘을 넘지 않는가
- ☐ 일정 이 겹치지 않는가
- ☐ 여섯 장의 순위 를 가족이 정했는가

다섯째가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. 「붙어도 안 갈 곳」은 안정이 아닙니다. 그건 버리는 장이거나, 더 나쁘게는 정시를 막는 장입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「안정 둘·적정 둘·소신 둘」이라는 공식을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. 이 공식은 수시가 주력인 학생에게 맞는 배분입니다. 수능이 강한 학생이 이대로 쓰면 안정 자리에 붙어서 정시를 못 가는 일이 생깁니다. 먼저 정시 선을 세우십시오. 그러면 몇 장을 어디에 쓸지가 저절로 나옵니다.

05 · 자주 묻는 것

여섯 장 배분에 대한 질문

Q. 정시 선은 어떻게 세우나요?

모의고사 성적으로 대략을 잡습니다.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— 수능은 아직 안 봤고, 정시 지원자 분포도 모릅니다.

그래도 대략은 잡을 수 있습니다. 최근 모의고사 성적으로 「이 정도면 어느 선까지」를 두세 단계로 잡아 두십시오. 잘 나온 경우와 못 나온 경우를 나눠 잡으시면 더 쓸모 있습니다.

중요한 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「이 아래로는 안 쓴다」는 선입니다. 그 선만 있어도 버리는 장이 사라집니다.

그리고 수능 뒤에는 이 선이 정확해집니다. 수능 후에 치르는 대학별고사가 있다면, 가채점으로 선을 다시 잡고 갈지 말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.

Q. 소신 지원을 여섯 장 다 하면 안 되나요?

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그것이 계획이어야 합니다.

여섯 장을 다 상향으로 쓰는 것은 「다 떨어지면 정시로 간다」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. 수능이 강한 학생에게는 합리적인 전략입니다.

다만 두 가지를 지키셔야 합니다.

첫째, 가족이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. 12월에 여섯 장이 다 떨어졌을 때 「예상한 일」인 것과 「무너진 일」인 것은 남은 두 달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.

둘째, 정시 준비를 끝까지 이어 가셔야 합니다. 수시 결과를 기다리며 손을 놓으면 계획의 전제가 무너집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여섯 장은 위에서부터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정하고 쌓는 것입니다. 바닥은 정시 선입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과 공개 전형결과를 집계한 것입니다. 개별 대학·학과의 합격선은 실지 않습니다. 배분 방법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며 학생마다 다릅니다.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.